

광주·전남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5% “동의”

26일부터 광주 1만956명·전남 3만3725명 대상 아스트라 백신 접종
시·도, 11월까지 시·도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 면역 확보 목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전환점이 될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첫 백신 접종 대상자 대부분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돼 우려했던 백신접종 거부 사태 없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해 ‘탈 코로나19’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내 148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 65세 미만 입원(소)자와 종사자 1만956명 가운데 1만351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 동의 비율(94.5%)은 전국 평균(93.6%)보다 높다. 이들은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요양 시설에는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 접종한다.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시 인구 145만여명의 70%인 101만 5000명을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며, 일반인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3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소화누리 정신요양시설 강당에서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한다. 준비, 발열 체크,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관찰까지 전 과정을 가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 접종도 이날 내 시작된다.

광주·전남·전북 의료진 420명이 조선대병원의

성관에 설치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당국은 24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지역 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가장 많은 시민이 접종하게 될 지역접종센터는 다음 달 중 영주체육관에 가장 먼저 설치되며 나머지 4개 자치구 접종센터는 5~7월 개소한다.

광주시는 25일 의사회, 병원협회, 간호사회,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다. 의료인과 기관들은 인력 지원, 접종률 제고 등 전반적인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이번 1차 AZ백신 접종 대상자는 3만 3725명이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65세 미만 전남 지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코로나 19 대응 요원(소방 등), 의원급 병원 종사자가 대상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약 95%가 방역당국에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도내 95개소, 1만2088명(의료진 포함) 가운데 1만1300명이 동의해 94% 동의율을 보였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 232개소, 5653명 중에선 5484명(97%)이 접종에 동의했다. 의원급 이상 병원, 코로나 대응 요원 등은 절대다수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암 등 지병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의료진 포함 대다수 종사자가 접종에 동의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했던 백신 기피 현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시대 ‘비대면 졸업’ ... 추억 남기기 22일 나주 동신대학교 졸업생들이 동기들과 졸업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위수여식을 취소한 동신대는 학과사무실에서 학위증과 학사모, 졸업가운을 배포하고 광장에 꽃벽 등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30층 아파트·40층 건물 못 짓는다

광주시가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된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사들여 공공 개발한다. 또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40층 이상 건물 신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웅섭 광주시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광주시는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범시민 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의 답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계가 인정한 무등산의 생태·문화 자원을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등산이 갖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브랜드화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등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 매입비를 결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부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80세대 규모 연립주택을 짓

기 위한 개발 절차가 추진되자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무등산 자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무등산 생태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광주시의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어떤 목적(용도)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한 획일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며 “(광주시장이 들어선) 상무지구를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서 친환경적이고 잘 짜인 신도시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후 광주답게 독특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품격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며 “이런 뜻을 담아 고층 건물 난립을 제한하고 도시경관, 보존대책 심의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전공대법 ‘3월 마지막 기회’ 살릴 토대 마련

어제 산자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2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
전남 사회단체들 “꼭 통과시켜야”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으나 정상 개교를 위해 오는 3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계기는 만들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기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제2 지역구’를 배치하는 등 ‘서진 정책’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지역 현안 법안 처리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관한 특별법, 한전공대법 등 26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 법안 소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법률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전공대법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토대는 만든 셈이다.

한편, 국회 통과 마지막 선으로 여겨지는 ‘2월 말~3월 초’가 다가오자 지역에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도사회단체연합회는 22일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2월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분야 기초과학 연구와 전문 인재양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나 정치인들이 수차례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36개 지역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인권 시각 교도소 ‘요지경 감빵생활’ ▶6면
- KIA 김규성, 타격폼 바꾸고 힘 키운다 ▶18면
- 굿모닝 예방 - 수원지구 ‘동네책방’ 숨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새롭고 놀라운
효과를 2주간 경험하세요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4주간 임상시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